

# 농서장

활과 함께한 인생



(故) 김 박 영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중요무형문화재 궁장 기능보유자  
부천활박물관 명예관장

- 1930 12. 20. 경북 예천 출생
- 1978 국궁 전수장학생
- 1982 전수이수자
- 1987 전수조교
- 1990 준 보유자
- 1996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 1998 부천문화원 궁시장 작품전시회
- 1999 전통궁시대회
- 2002 문화공보부 활제작과정 영화화
- 2011. 4. 11. 별세



## 활과 함께한 인생, 匠人 김 박 영

글 유재숙 사진 김창호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故)김박영 선생의 장인정신을 기립니다

# contents

- 7 인사말
- 8 들어가며
- 10 성장과정 및 활과의 인연
- 15 부천에 새 등지를 틀다
- 27 활의 재료와 제작과정
- 33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이 되다
- 38 맺는말







안녕하십니까?

부천문화원 원장 박형재입니다. 우리 부천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고장입니다. 고강동 선사유적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이어오며 이를 토대로 문화도시 부천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천은 흰모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며 복숭아, 포도과수원이 지천을 이루던 복사골 소사가 불과 30여년 만에 아파트와 빌딩이 가득한 현대적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한 급작스런 도시의 변혁과정 속에서 우리 부천은 향토문화를 찾아 계발과 함께 전승·보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고, 그 과정 속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弓矢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에 별세하신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故)김박영 선생은 부천에서 우리의 고유 무형문화인 각궁의 전파와 보급을 도맡아 오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생전에 (故)김박영 선생이 부천에서 전한 전통궁시문화는 그 맥을 지속할 수 있게 하였고, 오늘날 값진 부천의 향토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천문화원은 그러한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천문화원은 부천의 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여 문화적으로 풍성한 우리의 부천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자리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弓矢匠) (故)김박영 선생을 회고하며

### 1. 들어가며

궁시장은 활(弓)과 화살(矢)을 만드는 장인(匠人)을 일컫는 말이다. 활과 화살을 함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두 종목을 묶어 하나의 문화재로 지정한 것이다. 그래서 활과 화살을 만드는 무형문화재는 모두 제47호로 지정된다.

작년에 부천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한옥 공방거리를 찾았었다. 황토색 개량한복을 입고 활을 다듬다가 빙그레 웃으시며 반갑게 맞아주시던 선생의 모습이 떠올랐다. 고인은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전통 각궁(角弓) 제작에 헌신하고, 2011년 4월 11일 81세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우리나라 고유 무형문화인 각궁의 전파 보급에 앞장섰던 분의 안타까운 운명 소식에, 많은 문화계 인사들은 충격 속에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몇 일전 다시 찾은 공방에는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막내아들 윤경씨가 활 재료들을 다듬고 있었다. 늘 말이 없으시고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깊어 누구보다도 자식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다고 한다. 활 만드는 일을 천직으로 여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한길만 걸었던 고인은 떠났지만, 윤경씨가 1998년부터 아버지의 대를 이어 5년 전수과정을 거쳐 조교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제작과정 하나하나 착실하게 배운 대로 우리 전통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고인이 떠난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윤경씨에게 평소 고인의 가족 사랑과 아버님의 삶에 대해 애뜻한 마음을 들을 수 있었다.



심곡동 공방에서 해궁한 활을 당겨보는 모습





(故)김박영선생의 젊은 시절



전수조교 시절

## 2. 성장과정 및 활과의 인연

(故)김박영 선생은 1930년 12월 20일 경북 예천군 왕신동 새터말에서 엄한 아버지와 깔끔하고 양전한 어머니 사이에 1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성격이 차분하고 온순하며 늘 말이 없이 빙그레 웃는 낮이라 사람들은 그를 순둥이라고 했다.

장남이면서 외아들에 착하기까지 해 친척들이 그를 많이 귀여워 해 줬단다. 그 당시 장남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겸상을 하던 시절이었지만, 그는 아버지와 겸상을 해 본적이 없다고 한다. 고인의 선친은 사람은 예의와 법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외아들이 자칫 버릇이 없어질까 봐 어려서부터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다.



김기홍(김장환 선생의 차남)과 김박영 선생



활체에 물소뿔을 붙이기 위해 부레풀을 바르는 모습

고인이 태어난 예천은 예로부터 활로 유명한 동네였으며, 예천 사람치고 활을 못 만드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구나 활을 만들 줄 아는 궁(弓)의 고장이었다. 자연스럽게 그의 선친(故)김홍경씨도 일제 때부터 활을 만드는 일을 했다.

어려서부터 집안에 민어부레 끓이는 풀 냄새가 진동했으며 코흘리개 적부터 잔심부름을 하며, 어깨너머로 자연스럽게 활 만드는 것을 익히게 된 것이 평생 활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자라면서 틈틈이 선친의 일을 도와가며 배운 기술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제법 수준에 달해 있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다. 온순하고 차분한 성격에 활 만드는 것이 적성에 맞았으나, 활을 만들어서는 밥 먹고 살기가 힘들 것 같아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6.25 사변이 나던 해 그의 선친이 갑자기 50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선친이 작고하고 나니 집안 생계가 막막해져 홀어머니와 여동생들과 먹고 살기 위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물공장에 취직해 옷감 짜는 일을 시작했다.



대전 EXPO 전통공연관 시연시 관계자들과 함께



삼대가족이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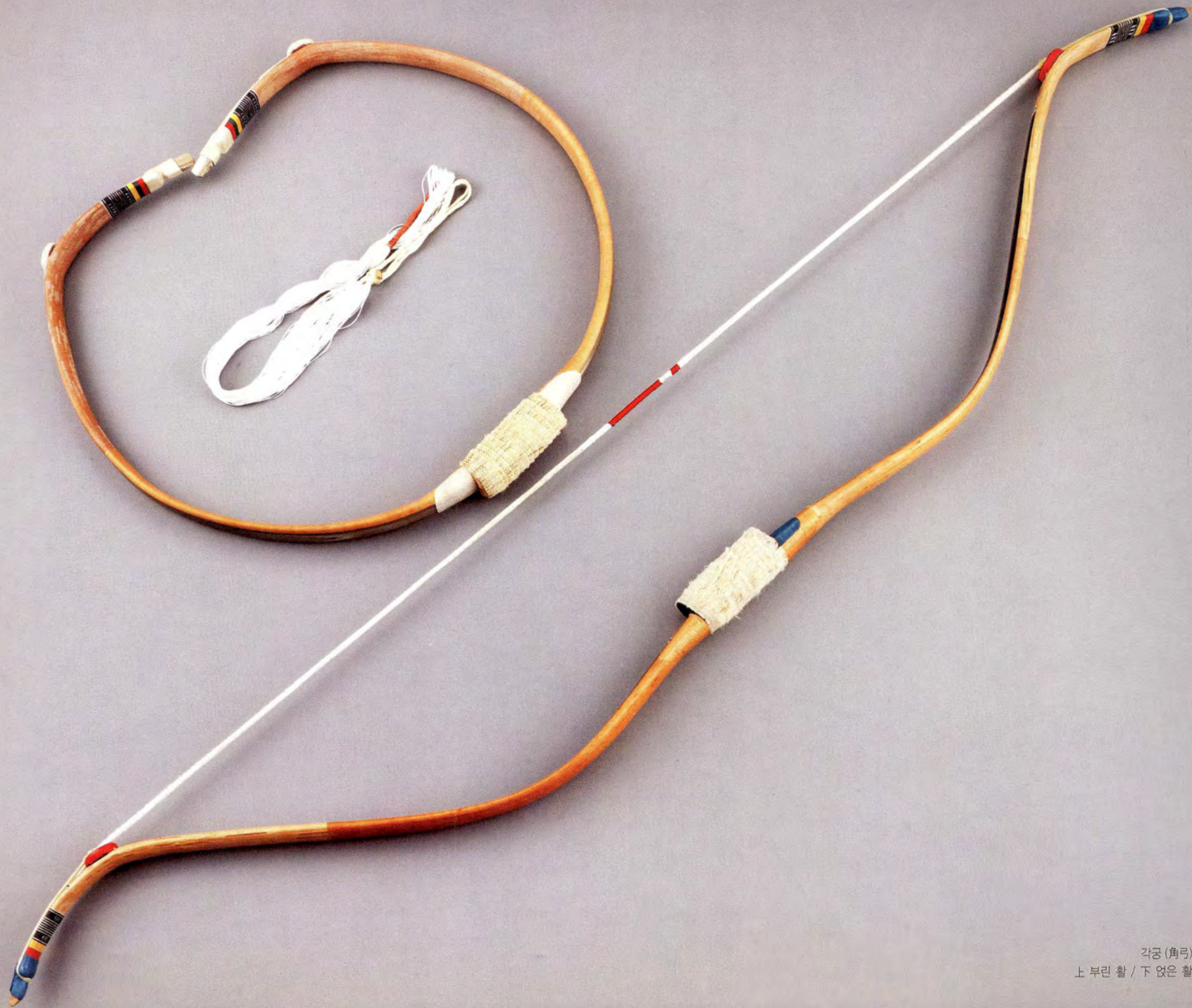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집안 형편이 어렵긴 마찬가지였다. 솜씨가 있어 무늬를 넣어가며 짜는 것도 잘한다는 칭찬을 들었지만 그는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군 제대 후 농사일을 비롯해 장사만 빼고 안 해본 일이 없이 다해봤단다. 적성에 맞지도 않았고 돈벌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자꾸만 선친 밑에서 툼툼이 배웠던 활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민어부레 끓이는 풀 냄새가 그리웠다. 잠을 자기 위해 누우면 방 천장에도 활의 모습이 그려져 다시 활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다 아버지도 없고 식구들 먹고 사는 것이 급해 일만하다 보니 어느덧 28살 노총각이 되었다. 그 당시 28살은 상당히 늦은 나이다. 친척의 소개로 10살 연하의 처자와 맞선을 보고 29살에 결혼을 했다. 가난한 집에 식구가 늘어 더 부지런히 일했지만 살림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차분하고 남보다 손재주가 뛰어나단 소리를 많이 들었던 터라, 고민 끝에 옷감 짜는 일을 집어치우고, 활을 본격적으로 배워 보기로 결심하고 활에 매달리기 시작한 때가 30살 쯤 되어서란다. 활을 만드시던 선친은 돌아가셨지만 고종사촌형님인 (故)이치우씨가 예천에서 활을 만들고 있어, 그 밑에 들어가 기술을 본격적으로 배워 나가기 시작했다.

눈썰미가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기술을 익혀갔고 재미도 있었다. 착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했지만 활도 돈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활을 만드는 일은 적성에도 맞고 낯설지도 않아 재미가 있었다. 무엇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니 일이 손에 척척 들어왔다. 몇 년간 성실하게 차근차근 배워 예천 활의 맥을 이어 갈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집에는 아들도 태어나고 식구가 늘어나면서 일을 많이 해야 했다.



각궁 (角弓)  
上 부린 활 / 下 엮은 활

### 3. 부천에 새 동지를 틀다

활 만드는 일에 전념해 밤낮없이 열심히 일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소사(지금의 부천)에서 활 만드는 사람을 구한다니 한번 가봐라!' 하고 귀땀 해졌다. 귀가 솔깃해 가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지금도 경기궁(京畿弓)하면 최고지만 그 당시 경기궁은 전국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으뜸이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경기궁하면 누구나 최고품으로 쳐주던 때라 꼭 배우고 싶었다. '그래 기왕이면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소사에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 고종사촌형님께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가서 제대로 배워 최고의 활을 만들어 보라' 며 격려해줬다.

홀로돼 고생하시는 어머니와 아내, 아들과 여동생들을 남겨두고 혼자 상경하려니 걱정이 앞섰다. 또 낯선 타지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지만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맘이 앞섰다.

그 당시 (故)김장환 선생은 전국 최상의 경기궁(京畿弓)으로 명망이 높았던 분이라, 그분의 문하생으로 입문하기 위해선 뛰어난 재주가 없으면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간 예천에서 착실하게 배우고 재주도 있는 것 같아 선생을 찾아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훌륭한 스승 밑에서 최고의 활을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1965년 밤 열차를 타고 난생처음 서울에 올라와, 다시 경기 소사(당시 소사군)에 도착하니 이튿날 아침 10시쯤 되었다.

김장환 선생께 큰절을 올리고 "활 만드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자, "아침밥은 먹었나?"고 물으시더니 못 먹었다고 하자 아침상을 차려 주셨다.

밤새 잠을 설치며 기차를 타고 온 터라 허기가 저 허겁지겁 아침을 먹고 나니 일순간 온몸에 피곤이 몰려왔다. 잠시 쉬고 싶었지만 밥숟가락을 놓자마자 선생은 일거리를 내놓고 일을 시키셨다.

일거리를 내어주곤 선생은 아무 말씀도 없이 일만 하셨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우고, 고종사촌형 밑에서 그동안 보고 배운 것을 토대로, 다리에서 쥐가 나도 참아가며 주신 일거리를 차근차근 손질해 나갔다.

선생은 아무 말씀도 없이 몇 일간 일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만 보시더니 드디어 말씀을 하셨다.

'그간 술한 사람들이 활 만드는 걸 배운다고 왔다가는 며칠 못 견디고 지발로 떠났는데, 자넨 두고 보니 제대로 배울 사람 같다고 열심히 배워 보라' 며 처음으로 말씀하셨다. 내색은 할 수 없었지만 마음은 뿔 뜻이 기뻐다.



(故)김장환 선생



좌로 부터 김장환, 김기완, 김박영  
삼곡동 공방에서 해궁작업중

김장환 선생은 활 만드는 솜씨가 아주 뛰어난 분이라, 그분 밑에서 맘에 들게 활을 만든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선생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해 주시는 법도 없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술을 익히려면 수십 번씩 반복해가며 겨우겨우 터득해 갈수 있었다.

그 당시 선생이 참 야속하다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렇게 기술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 가며 힘들게 배웠기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각궁 제작에 맥을 이어갈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니 공시장에 오를 수 있었으며 부천에 등지를 틀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그도 스승한테 배운대로, 하나하나 아들이 스스로 터득 할 때까지 수십 번씩 반복하도록 하고, 맘에 들 때까지 하도록 하신단다. 워낙 말씀이 없으신 분이래 아들도 아버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배웠다고 한다.

그는 선생 밑에서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착실하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정말 열심히 일했다. 심곡본1동 산지락 밑에 공방에서 먹고, 자고, 눈만 뜨면 재료를 다듬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해도 칭찬 한번 없었고 그렇다고 꾸짖은 일도 없었다.

스스로 깨우쳐 나가라는 뜻이니 묵묵히 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선생의 큰아들인 (故)김기원씨도 함께 배웠는데 아들한테도 엄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힘들게 일하면서 고향에 두고 온 홀어머니와 아내, 아들 생각에 목이 메고, 보고 싶은 마음에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얼른 데려와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말도 못하고 꾀꾀 참아가며 일만 했다.





도지개 치기



부레물 끓이기

드디어 스승으로부터 신임을 받아 이듬해 꿈에도 그리던 아내와 아들을 우선 부천으로 데려 오고, 홀어머니는 여동생을 출가시키고 그 후에 올라오시게 됐다. 식구들과 함께 있으니 맘 편히 일을 할 수 있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들어가 잠자는 아이들 얼굴만 봐도 피곤이 풀리며, 사람 사는 집 같아 비좁은 작은 집이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막내 아들 윤경씨가 부천에서 태어나 3남 1녀를 두게 되었다.

온종일 앉아서 활의 몸체를 깎고, 고르게 재단하고, 손질하다 보면 손이 부르트고, 터진 다음에 굳은살이 박이고 수시로 다리가 저리고, 온몸이 뒤틀리며 통증이 오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어 참고 견딜 수 있었다.

활 깎기도 힘들지만 민어부레는 날씨에 민감해 잘 끓여 알맞은 농도의 풀을 만드는 것 또한 힘든 작업이다. 또 소힘줄도 힘든 작업이긴 마찬가지다. 활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소 세 마리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열 번 정도 직접 비벼 빨아 말리면서, 잘근잘근 두드려 펴가며 말리면서 흰 명주실 같이 된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작업은 없다. 그렇지만 그는 이 일이 천직이려니 하고 한 번도 후회 하거나 다른 일을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그가 생전에 "활을 만드는 일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곁에 채찍 자가 없으면 한없이 나태하기 짝이 없으며, 또 기계로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수천 번의 손길이 가야 만들어지는 수작업이다 보니, 무한한 인내심과 끊임없는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애정과 관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다.



성무정에서 활시위를 당겨보는 모습

또 “활을 만들 때 몸과 마음은 오로지 한곳을 향해야 하고, 활이 완성되기까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래야 만드느 사람의 혼과 정신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화살을 끼워 당기면 곧게 나갈 수 있다고 했다.



(故)김장환 선생

그래서 활을 만드는 일과 쏘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했다. 조금이라도 맘이 흐트러진 채 만들면 균형이 맞지 않고, 시위를 당겨 보면 단박에 표가 나기 때문에 쏘는 사람의 기가 옳고, 사용하는 공구가 적합해야 명중이 된다고 했다.

같은 재료, 같은 기법으로 만든 활이라도 좋은 활이 나오고, 때론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다며, 맘에 들 정도로 흡족한 활이 나오면 훌륭한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처럼 자랑스럽고 뿌듯하다고 했다.

그는 조교가 되어서도 스승 밑에서 우리 전통의 맥을 이어야 한다는 금지와 자부심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한눈을 팔지 않고 묵묵히 일만 했다.

그런데 뜻밖에 1984년 김장환 선생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 각궁을 위해 후계자를 키우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떠나니 아버님을 여월 때만큼이나 슬펐다. 20년 넘게 스승과 함께한 세월이 허무하게 끝이 났다. 선생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남은 사람들이라도 더 열심히 일해 스승의 뜻을 받들고 활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

업친 데 덩친 격으로 스승이 떠난 지 얼마 안 돼 1988년 사랑하는 아내마저 하늘나라로 떠났다. 평생 고생만 시켰던 아내가 혈압으로 쓰러진 것이다. 적은 돈으로 사남매를 먹이고 키우는데 급급해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못했던 것이다.

한 달에 겨우 90만원을 가져다 썼는데 애들 교육에 집안대소사를 챙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세상물정 너무 몰랐다. 얼마 안 되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갖다 주면 남편의 의무는 다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내는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어려운 집에 시집와 홀어머니를 모시고 시누이들과 살면서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불평이나 힘든 내색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의 나이 50살에 상처했으니 애들하고 살아가기가 참 힘들었던다.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이었지만, 다행히 애들이 착하고 바르게 커줘 고맙게 생각한다.

한편으로 애들한테 많이 미안하기도 하단다. 공부 잘하는 아들도 아버지 능력 생각해 학교를 낮춰 장학금을 주는 학교로 진학하고, 아버지 원망 한번 하지 않고 모두 효자 효녀들이란다.

아내가 허망하게 떠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선생의 큰아들이자 친구 김기원씨가 활 구입처에 다녀오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짧은 기간 내에 스승과 아내, 친구까지 소중한 동반자를 한꺼번에 잃고 나니 활을 만들 의욕을 상실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상실감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정부에서 주는 전승지원금 가지고는 애들하고 생활하기도 힘든데, 김장환 선생 손자들은 아버지마저 잃고 그만 바라보고 있어 활을 만들어야 생계를 이어 갈 수 있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선생 손자들을 데리고 일을 시작했다. 생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전통 문화재인 활을 버릴 수가 없었다. 활에만 매달려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살았다.



대나무에 활몸자로 금긋기



성무정의 공방

그러나 얼마 후 김장환 선생 손자들이 다른 일거리를 찾아 공방을 떠나갔다. 갑자기 오갈 데가 없어진 그는 공방을 마련할 처지가 못돼, 성무정(聖武亭) 사두(射頭) 최재상씨를 찾아갔다.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딱한 처지를 이해하며, 우리 전통인 각궁의 맥을 끊어지게 할 수는 없다며, 성무정 아래 작은 공방을 마련해 주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성무정에 활을 쏘러 오는 분들도 가끔 만나고, 그분들의 활도 손봐주며 혼자서 공방을 부지런히 꾸려 나갔다.

경

"분와도 말선하고 경세로 도약하는 무전"

# 부천 활박물관 개관

축

2004.12.14(화) 오후3시 / 부천종합운동장 / 문의전화 614-2678

富川市弓道場



부천 활박물관 개관식

2004년 부천 종합운동장 내 활터와 활 박물관이 생기고, 부천시가 세계무형문화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궁시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마련해준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한옥 공방에서, 아버지의 기업을 잇겠다고 열심히 배워 전수과정을 마치고, 조교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아들과 함께 우리전통의 맥을 이어 활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해공작업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역사와 함께 맥을 이어온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숙제인데, 그는 잘 참고 견뎌 왔기에 최고의 명장 궁시장이 되었던 생각이 들었다.

#### 4. 활의 재료와 제작과정



각궁(角弓) -부린 활

활(弓)은 탄성이 강한 나무 등에 시위를 걸어 화살을 메우고, 시위를 당겨 쏘는 기구다. 활의 명칭은 각궁으로 고구려 산산왕 26년에 각궁에 대한 기록이 있는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활은 맥궁, 단궁, 각궁 등으로 불리었는데 벽화속의 활의 형태나 구조적 특징이 현재의 각궁의 원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재료를 기준으로 말하면 물소뿔이 주재료로서 각궁(角弓)이라 한다. 또 재료는 물소뿔 외에 대나무, 뽕나무, 참나무, 소힘줄, 민어부레, 소가죽, 화피(자작나무껍질)등이 들어가 '복합궁(複合弓)이라고도 한다.



궁시일습

활은 지역, 민족 등에 따라 다양한 재료와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우리의 전통 활인 각궁(角弓)은 동·식물성 재료들을 복합적으로 섞어 만들기 때문에, 재료간의 서로 밀고 당기는 힘으로 탄력이 증가되고, 쏘는 사람의 기력에 따라 힘 조절이 가능한 '살아있는 활(弓)'로 세계에서 손꼽힌다. 현재 알려진 활의 종류는 정량궁(전시용 과거 시험 시 초·복시용), 예궁(향음 주례용), 목궁(전시·수렵용), 철궁(전시용), 철태궁(전시·수렵용), 포궁(전시용), 단궁(수렵용), 죽궁(전시·수렵용), 간각궁(전시·수렵용) 등인데 현재는 각궁만이 사용되고 있다.



심물들이기



심놓이 작업

활은 선선한 바람이 부는 초가을 9월부터 시작해 이듬해 4월까지 활을 만든다. 활 만드는 일은 재료 구입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일이 산지로 직접 구하러 다녀야 한다.

각공의 제작 순서는 뿔켜기-상목다듬기-연소하기-부각하기-뒤깎기-심놓기-해궁하기-화피단장의 순서로 진행된다.

“활에서 대나무는 사람의 몸으로 치면 뼈대인 셈이다. 소뿔과 소힘줄을 이용해 활의 안팎에 살을 붙이고 손잡이는 참나무를 쓰며, 활 곁에는 방수를 위해 화피(자작나무껍질)를 입힌다. 접착제는 민어부레를 3시간 이상 푹 끓여 식인 후 바르면 된다.”고 한다.

활체의 안쪽에 붙인 물소뿔은 활을 당겼을 때 탄력을 좋게 하고, 바깥쪽에 붙인 소힘줄은 활을 당겼을 때 활을 부러지지 않게 하여 활의 복원력을 극대화 시켜준다. 또한 접착제로 사용되는 민어부레풀은 접착력이 좋고 딱딱하지 않아 예전부터 활을 만드는데 최상의 재료라 하였다.

그러나 민어부레풀은 습기에 약하여 봄, 여름에는 뽕과 나무를 고르고 다듬는 작업들을 하고, 가을, 겨울이 되어서야 풀을 끊이고, 재료들을 붙이는 작업들이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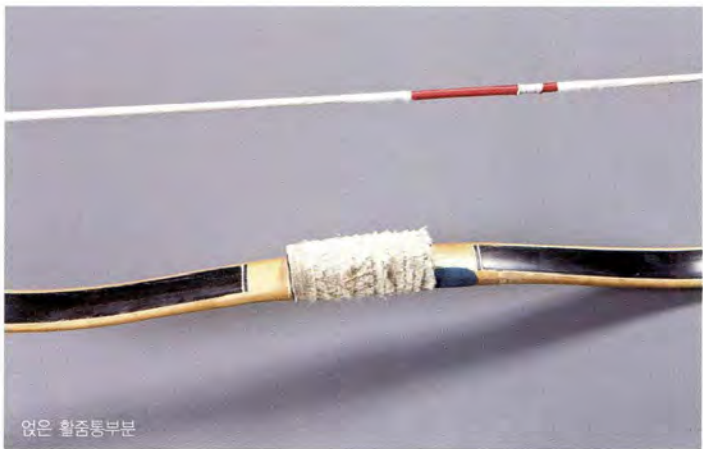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활의 세기를 조절하고 균형을 잡는 해궁(解弓)을 하는 것과, 활의 표면에 화피(樺皮)를 붙이는 등의 작업이 끝나면 비로소 하나의 각궁이 완성된다.

활의 생명은 정교한 접착, 손잡이 부분의 강도, 완전한 해궁 등 3요소가 모두 갖추어질 때 오래 가며, 또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 보관해야 한다.

각궁(角弓)은 시위를 풀어 놓으면 활체가 반대 방향으로 휘는 만궁(彎弓)이다. 이것은 활의 탄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관 시에는 시위를 풀어 부린활(弛弓)로 궁대에 넣어 보관하고, 사용 직전에는 활의 양끝을 잡고 반대로 시위를 걸고 엇은 활(張弓)로 사용한다.



엇은 활고지



엇은 활중통부분



다른 나라의 복합궁(複合弓)이 대부분 완만한 만궁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각궁은 매우 급격한 곡선을 그리고 있어, 유연하면서도 탄력이 좋아 적은 힘으로도 화살을 멀리 보낼 수 있다. 또한 활을 당겨 화살이 나갈 때 생기는 충격을 각각의 재료가 흡수 할 수 있는 '살아있는 활(弓)'이다. 또 각궁(角弓)은 사용된 뿔의 색에 따라 명칭이 다른데 검은 뿔을 붙이면 흑각궁(黑角弓), 흰뿔을 붙이면 백각궁(白角弓)이라 한다. 활자체의 성능은 같으나 흰뿔은 구하기가 어려워 백각궁을 귀하게 여겼단다.

성무정궁방에서

물소뿔은 붙인 정도에 따라 장궁(長弓)과 휘궁(徽弓)으로 구분된다. 장궁은 줌통에서 도고자까지 뿔을 길게 붙이고, 휘궁은 오금을 지나 휘궁 뿔끝까지 짧은 뿔을 붙이고, 삼삼이에서 도고자까지 뿔나무를 붙여 만든 활을 말한다.

양궁에서 사대와 과녁의 거리는 최대 90미터이지만, 국궁은 145미터로 55미터나 더 멀리 날아간다. 각도까지 조절해 쏘면 힘이 좋은 사람은 최대 300미터까지 날아간다.

활은 이처럼 일 년 내내 깎고, 다듬고, 붙이고 하는 과정을 반복해 하나의 활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무려 3500번 내지 4000번의 손이 가야한다. 그러다 보니 일 년에 한 100개 정도의 작품이 만들어진다.



상목다듬기



고자깎기

## 5.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공시장이 되다



육군사관학교 기증 (왼쪽)시정 유명기

1971년 9월 공시장이 문화재로 지정됐다. '우리 활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지금도 그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단다. 활을 만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장인(匠人)정신이 없으면 해 낼 수 없는 일이기에 더 기뻐다. 그는 13년이란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1978년 전수 장학생이 되었다. 전수 장학생은 국가에서 5년간 장학금을 보조해준다. 이수과정을 거치면 조교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과정도 피나는 노력과 끈기가 없으면 조교가 될 수 없다.

조교 선발기준도 공정하고 엄격하다. 조교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자격증을 준다. 5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천직이라 여기며 견뎌왔다. 드디어 1982년 12월 전수과정을 마치고 이수자가 되었다.

1987년 2월 조교로 인정받았다. 그동안 같고 닮은 기술을 바탕으로 전통 활 만드는 법을 가르칠 수 있었다. 활 만드는 법을 배워보겠다고 간간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며칠 못가 다들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





상동 공방에서 부각작업중 (왼쪽)전수조교 김윤경

하루 종일 정좌를 하고 화장실 갈 때만 빼고 앉아서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답답해 하고, 또 돈벌이도 시원치 않으니 선뜻 배우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전통각공에 대해 정리된 이론서나 연구 자료가 없다보니 생소한 것을 배우겠다는 젊은 사람들은 더욱 없었다. 각공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힘들기만 하고, 밥벌이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잡을 수도 없었다.

1990년 10월 10일 60살에 준 보유자로 지정 받았다. 조공에 관한 달인이 된 것이다. 전국에서 많은 기자들이 취재하러 왔다. 특히 국방부 기자 인터뷰에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일종의 무기 조공은 하늘이 내린 천직이요, 활은 우리의 역사문화를 보전케 해준 전통병기이며 끝없는 인내가 요구되는 고행의 예술” 이라고….

1980년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국공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한민국 전통 공예대전에 출품한 작품들이 수차례에 걸쳐 입상하면서, 위상이 높아지자 사람들 인식이 바뀐 것도 큰 보탬이 되었다. 외국인들은 모양이 변함없는 양공예 비해 동글게 말리는 각공을 신기하게 여겼다. 수천 년을 두고도 제공 과정이나 재료는 물론, 형태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우리 활(弓)의 특징이다.

해외 독일, 일본 등 몇몇 국가에서 찾아와 양공과는 비교도 안 되는 뛰어난 탄력에 감탄했다. 특히 독일사람 중에는 우리나라 활 수집가가 있는데 40여점을 소장하고 있을 정도다.



당시 이해선 부천시장으로 부의 축하를 받는 모습

1996년 드디어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공시장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12월 10일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



제2회 복사골 궁술대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오직 활 만들기에 평생을 바쳐 66살에 최고의 영예를 얻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공시장 보유자란 칭호를 얻은 것이다. 활을 만드는 공시장(弓矢匠)으로는 그가 독보적인 존재다. 1998년 6월 부천문화원 주최로 공시장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부천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기능보유자에 대한 예우였다. 1999년 6월에도 문화재를 보존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전통 궁술대회를 열었다. 예술제에도 매년 각궁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궁술대회를 열고 부천에서 전국대회도 치렀다. 2002년 4월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전통공예를 소개하고 활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영화로 제작하였다. 지금까지 활에 대한 문헌이 없었는데 그의 활 만드는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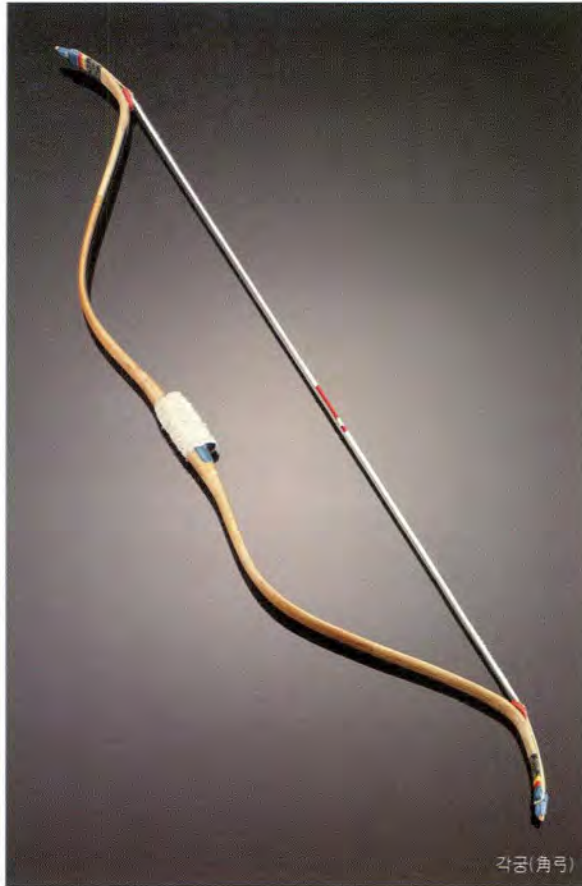
부산 활박물관 내부



(故)김장환 선생 흉상 앞에서

“전통을 이어간다는 건 세상이 변한다고 현대에 맞는 변형이 아니라 옛날 방식 그대로의 진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가 만든 활은 수백 년 전과 한 치의 어긋남이 없다.  
 그가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보유자가 되면서 부천에도 그의 스승인 (故)김장환 선생과, 그의 공을 기리기 위해 부천 춘의동 종합운동장 내 ‘활 박물관’이 2004년 12월 개관 하였다.  
 박물관은 전시실, 영상실, 시연공간, 김장환 기증전시실, 수장고, 야외 활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장환 선생의 유품 240여 점과 신기전기화차, 화살, 활쏘기 도구 등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부대행사로 각궁의 이해와 활 문화체험 등을 비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활 박물관 명예관장으로 추대되어 활 박물관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실습도 했었다.  
 그가 만든 활은 경복궁 석조전에 3점이 상설 전시되어 있고, 역대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소장하고 있으며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에도 전시돼 있다.

## 6. 맺는말



우리 역사 속 각궁은 끊임없는 외침에 맞선 우리의 진정한 최종병기였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각궁은 조선 병사들의 최종병기였다. 총이 출현하면서 그 위력을 상실했지만, 심심단련뿐 아니라 호연지기를 기르고, 요즘은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긴다.

공자도 유학의 최고 이념인 인(仁)을 활 쏘는 것과 비유할 만큼 활쏘기는 군자가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이라고 여겼다.

요즘 영화 '최종병기 활'이 극장가를 휘몰아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현상에 윤경씨는 사람들의 관심이 일시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우리 전통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절실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한다.

예의를 중시하는 국궁은 '궁도9계훈(弓道守則九戒訓)'이라는 궁도범절을 중시한다. 평생을 활과 함께 삶속에서도 궁도9계훈을 지켜온 (故)김박영 선생이야 말로 하늘이 낸 명장이다.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지만 우리 전통을 이어왔다는 자부심 하나로 후회는 없으며, 다시 태어나도 활을 만드는 장인(匠人)이 될 것'이라던 그는,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우리 전통의 맥을 이어가며 국내 최고의 궁시장(弓矢匠)이 되었다.



상동공방에서

부천 상동영상단지 내 한옥 공방에는 아들 윤경씨가 (故)김박영 선생의 대를 이어 활을 만들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 맥이 끊어질까 염려했는데, 다행히 막내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전통 활을 배우겠다고 나섰을 때 내심 기쁘기도 했지만, 잘 버텨줄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했다.

또 고인은 우리 전통문화 활의 명맥을 이어 간다는 것은 금지와 책임감이 따라야 한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지켜주길 바란다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도 남기셨다고 한다.

천직의 소임을 다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곁을 떠났지만, 든든한 막내아들 윤경씨가 고인의 뒤를 이어가고 있어 우리 각공의 앞날이 밝지만 하다.

또 고인이 평생 부천에 등지를 틀고 사셨고, 부천 활박물관의 명예관장인 점을 고려해, 때가 되면 유품들을 정리해 활박물관에 기증할 의사와 추모사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 늘 연구하고 고민하던 고인의 장인(匠人) 정신에 금지를 가져보며, 고인이 만들었던 '살아있는 활(弓)'에서 그분의 끈은 정신과, 아름답게 휘어진 곡선에선 고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故)김박영 선생의 명복을 빌며  
이 글은 고인과 생전에 나눴던  
얘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



重要無形文化財  
 保存者又連金博榮  
 財器号子匠



흑각궁(黑角弓)



백각궁(白角弓)



각궁 - 줌통

각궁 - 고자



부천한옥마을(공방거리)



공시장공방





### 궁도9계훈(弓道守則九戒訓)

정심정기(正心正己) 몸을 바르게 함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고  
 인애덕행(仁愛德行) 어짐과 사랑으로 덕스러운 행실을 하고  
 성실겸손(誠實謙遜) 정성스럽고 참되고 실속 있게 남에게 나를 낮추어 순하게 대하고  
 자중절조(自重節操) 자신의 품의를 소중하게 하고 절개와 지조를 굳게 지키고  
 엄직과감(廉直果敢) 곧고 청렴하며 용감하고 결단성을 강하게 가지며  
 예의엄수(禮儀嚴守) 예를 차리는 절차와 몸가짐을 엄하게 지키며  
 습사무언(習射無言) 활 쏠 때는 말하지 말 것이며  
 불원승자(不怨勝者) 나를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말 것이고  
 막만타궁(莫灣他弓) 남의 활을 당기지 말 것이다

#### · 참고문헌 ·

부천문화 [부천문화원 2010]  
 부천의 궁시문화 [부천문화원 2005]  
 황혼에 핀 무지개 [부천시상동종합복지관 2002]

발행일 : 2011년 11월 21일  
 발행처 : 부천문화원  
[www.bucheonculture.or.kr](http://www.bucheonculture.or.kr)  
 제 작 : 그리지오디자인  
 후 원 : 부천시, 부천시의회



문화특별시 부천의 뿌리  
부천문화원

부천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부천의 문화진흥을 위한 향토사 수집·연구 및 지역 문화사업 수행을 위한 비영리특수법인으로 문화도시 부천의 문화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 진행 및 올바른 향토사 정립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국가 및 부천시의 폭넓은 지원과 육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